

일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우리 독립군 간부의 처형 장면. 목을 치기 전 뒤편에 일본군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 다른 사진. 웃이 벗겨진 여인은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목은 잘려 있고 얼굴은 등 뒤로 돌려져 있다. 배어 낸 독립군 병사의 머리를 공중에 높이 매달아 놓은 사진도 있다.

'이것이 일본의 실체다'. 분 칼럼의 독자 한 분이 며칠 전 누군가의 글과 사진을 보내왔다. 일본의 잔혹한 만행을 드러내는 수십여 장의 사진들, 영국 여행가가 찍었으며, 영국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했다. 물론 나는 그런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다만 이런 사진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이유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즘 들어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내 '카툰'에 장문의 글을 보내온

분도 있다. '트럼프의 목인과 아베의 노립수'라는 제목이 달렸다. 그는 일본이 남한을 상대로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무역 전쟁을, 미국의 동이나 합이 없이 시작했을 리만무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이 한일수교 이후 54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적시한다. 100여 종류가 넘는 첨단 소재 산업을 옮겨주고 마치 마름이 소자로 걷어가듯 했다는 것이다.

그의 글 중에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다. 마름과 소작인의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향후 5년간 약 5천 달러 정도의 GDP 손실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원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고 있지만 이번 무역전쟁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사건의 중심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으로 끌

려가 1년 이상 일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일본 법원을 통해 수십 차례 권리 구제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다 강제동원이 시작된 현상이 한 반도라는 점에 착안, 한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에 이르렀다. 기대과 달리 1심과 2심에서는 또다시 패소했다. 이윽고 2012년,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이후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19년이 걸렸다.

'적반하장' 치졸한 경제 보복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보기에 이 판결은 '한일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있었던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장관 장관의 발언에서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G20 때까지 징용 문제와 관련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스가 관방장관)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아베 총리) 결국 정

용 문제에서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역사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자, 일본 정부는 역사와도 무관하고 보복도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뺌한다. 역사 문제도 아니고 경제 보복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경제징용 판결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일본의 수출 규제는 떠오르는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의 시작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법하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설명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이는데, 일본 또한 자신의 경제 강국 지위를 위협하는 한국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중국에 이어 한국에 언제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번 수출 규제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싸이 자라나기 전에 아예 짓밟아버리자는 생각이다.

아베 총리가 주도한 경제 보복 조치의 배경에는 선거를 앞둔 일본은 물론 한국

내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야당이 현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은 내다봤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일부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부재를 질타하며 일본의 장단에 찬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일본의 간계에 자신들이 휘말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아베를 도와주었다.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 행위'라 하면 너무 과하다 할 것인가.

누가 '맞짱'을 두려워하는가

다행히 국민은 아직 살아 있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일본으로 떠나는 관광객도 이전 대비 현저히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 동네마트 300곳은 일본 제품 판매 중단 운동에 뜻을 모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표어가 급속도로 퍼

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은 이마저도 마뜩지 않은 모양이다. 사설 등을 통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일으키려는 것은 득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흥분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한다. "일본과 맞서 싸우자는 국민 분노가 거세지만 아직 힘이 없으니 참자"고 한다.

나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언론이 가당찮게 나서서,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자제하도록 훈계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불매 운동과는 별도로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부단히 외교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분업화인 셈이다. 여기에 어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을 가진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때린 놈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맞은 놈은 힘이 없으니 그냥 참자고? 절대 그럴 순 없다. 굴종으로 잠시 얻게 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힘이 없어 설명한 대 더 맞더라도 시원하게 한번 맞짱을 따야 하지 않겠나. 저들이 다시는 알보고 깔보는 일이 없도록.

'수영의 꽃' 경영, 지금부터 스피드다

21일 스타트...개인혼영 김서영·배영 임다솔 기대
19일 오픈워터·20일 다이빙, 대회 일정 마무리

광주에 '수영의 꽃'이 핀다.

지난 12일 대장정에 돌입한 제18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매달 레이스 경쟁으로 뜨거워진다. 21일 '수영의 꽃'으로 통하는 경영 종목이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 열리는 수영선수권대회는 6개 종목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수영) 76개 세부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오픈워터는 19일 오전 8시30분과 8시 45분에 시작되는 남자-여자 25km 질주를 끝으로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세계수영선수권 사상 한국의 첫 메달이 나온 다이빙 종목도 20일 마지막 두 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리게 된다.

여자 1m 스프링보드 동메달리스트 김수지가 김지욱과 오후 3시 30분 시작되는 혼성 3m 싱크로나이즈 스프링보드 경기에 나선다. 오후 8시 45분에는 남자 10m 플랫폼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펼쳐진다.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을 화려하게 물들였던 아티스틱수영도 20일 9일간의 열정을 끝낸다. 혼성 듀엣 프리(오후 5시), 프리 콤비네이션(오후 7시) 경기에 이어 오후 8시 45분 갈라쇼가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게 된다.

그리고 21일 오전 10시부터 42개의 메달을 놓고 경영에서 찰라의 승부가 시작된다.

경영 첫날부터 남녀 400m 자유형, 남녀 4×100m 계영에서 4개의 금메달이 나온다.

이번 대회의 '스타 선수'인 쑤양(중국)이 경영 시작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된다.

2007년 대회를 시작으로 7번째 세계수영선수권에 나서는 그는 자유형 400m에서 사상 최초의 4회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스타 군단'미국도 지난 17일 전세기를 통해 광주에 입성했다. 이들은 18일 결전의 장소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메

달 싸움을 위한 워밍업에 나섰다.

미국 대표팀은 '수영 황제' 칭호를 물려받은 케일럽 드래셀과 '수영 여제' 케이티 러데키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18명이 포진해있다.

한국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서영이 개인 혼영 200m에서 한국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여성 메달리스트를 꿈꾼다. 배영 임다솔도 이번 대회 한국이 주목하는 기대주다.

한편 27m의 '아찔한 점프' 하이다이빙은 22일 만날 수 있다. 남자는 27m, 여자는 20m 플랫폼에서 뛰어내리게 되며 1:2 차 협회로 결선 진출자가 가려진다.

여자 결승전은 23일 오후 12시 15분, 남자 결승전은 24일 오후 12시 열린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참가하는 한국의 김서영이 훈련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오늘(19일)의 광주세계수영

- △다이빙=남자 10m 플랫폼 예선 (11시) 팀 프리 결승(19시 이상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
- △수구=남자부 조별리그 3차전 한국-몬테네그로(17시50분·남부대 수구경기장)
- △다이빙=남자 10m 플랫폼 예선 (10시) 준결승(15시30분) 여자 3m 스프링보드 결승(20시45분 이상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 △아티스틱수영=혼성 듀엣 프리 예선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임원) 후보 모집공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임원)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인원	임기	주요 직무내용
이사장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 총괄·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2. 응모자격

- 가. 지방공기업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급 이상으로 재직 및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이사장직위 직무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나.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다. 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수행요건

- 지방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 이사장 직무수행 요건 참조 *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에서 다운로드
- 4.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보수: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여수시장과 체결
-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9. 7. 19.(금) ~ 8. 5.(월) 18:00까지
 - 접수장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 * 주소: (59713) 전남 여수시 문수로 106, 8층(문수동, 대흥빌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경우에 한함)
 - *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까지 접수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서 교부 받거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의 '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 [소정양식]
 -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 * 직무수행계획서는 별도 파일 첨부된 이사장 직무수행 요건을 참조하여 임용직원의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을 포함 A4 용지 5매 이내로 기술
 - ③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 * 지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주요경력, 업적분야, 사회봉사 실적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⑤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⑥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 * 자격증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
- 6.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 총 5개 평가항목의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
 - *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공고(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2019. 8. 12.(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등 총 6개 평가항목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
 - *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경력, 자격 등 제출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관련 절차를 유념하여 지킬바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및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임원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공모 심사 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61-662-8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